

보도 일시	2022.5.16.(월) 조간 2022.5.15.(일) 11:00	배포 일시	2022. 5. 13.(금) 오후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실 양식산업과	책임자	과 장 고송주 (044-200-5630)
		담당자	사무관 이광호 (044-200-5631)

어류 양식어가와 손잡고, 체계적인 생사료 관리 시작

- 해수부, 생사료 사용이력 관리 시범사업 실시(5.30.(월)~11.30.(수))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양식 실현을 위해 어류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생사료* 사용이력 관리 시범사업’을 5월 30일(월)부터 11월 30일(수)까지 6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어류 양식어가와 수협중앙회, 그리고 일선 지자체도 함께 하기로 하였다.

*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사료의 일종으로 곡물과 어분을 배합하여 가열 후 건조한 배합 사료와 달리 물고기를 잘게 갈아 만든 사료(가열 및 건조 과정 생략)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와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2004년부터 어업인들이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를 사용하도록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어류양식용 배합사료가 생사료에 비해 어류의 생장에 있어 효율이 떨어지다보니 어업인들은 생사료 사용을 선호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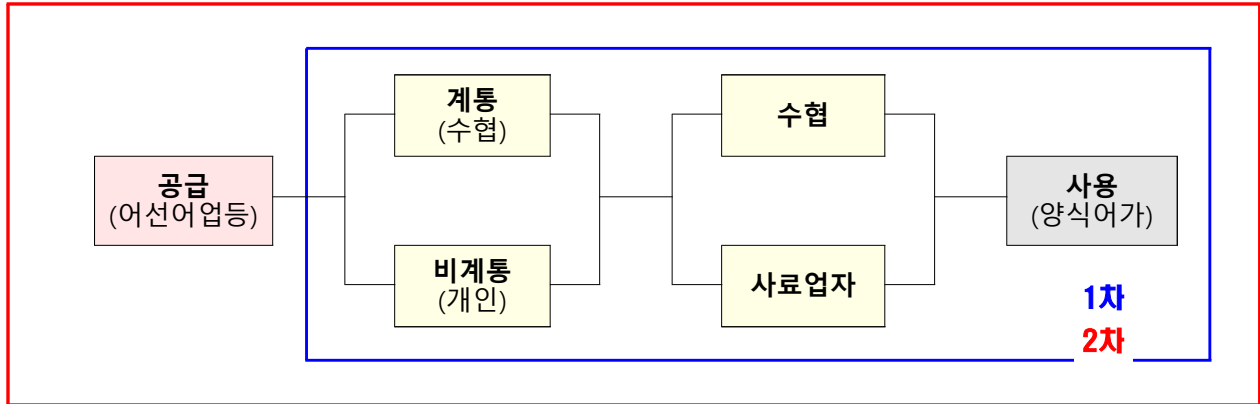
이에 해양수산부는 배합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배합사료 공장 건립을 지원하는 한편, 생사료의 원료로 불법적으로 포획된 어린물고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오는 5월 30일(월)부터 11월 30일(수)까지 생사료 사용이력을 관리하는 ‘생사료 사용이력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류 양식어가가 거래하는 생사료용 어획물 판매처를 추적하여 공급처를 확인하고, 공급처에서 어린물고기 등 불법어획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된 통계자료를 활용해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된 생사료만 어류양식어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계획이다.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생사료 이력관리 시범사업은 수산자원 보호와 친환경 양식업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업이다.”라며, “생산자들은 수산자원보호에 기여하고, 소비자들은 안전한 수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력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어류양식수협 실무자 협의회('22.1.18) 등을 통해 도출한 시범사업(안)

< 사료용 어획물 유통 경로 >



□ (개요) 사료용 어획물의 사용처인 양식어가부터 유통 경로를 역으로 추적하여 공급자를 특정함으로써 불법 어획물의 사료사용 금지

□ (1차) 생사료 판매를 위해 어류양식어가와 직접 접촉하는 수협, 개인 사료업자를 대상으로 사료용 어획물 상위(직전) 구매처 확보

○ 최종 판매자인 수협과 사료업자에게 사료용 어획물 공급 어선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기에 점진적인 정책 추진 필요

* 현재 생사료 품귀현상으로 인해 사료업자들은 구매가 가능할 때마다 최대한 냉동 창고에 확보하며, 창고 내 혼합된 어획물에 대한 출처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한계

기간	내용
'22.5월	- 조합원 대상 생사료 사용 관리 시범사업 홍보 - 생사료 이력 관리대장 보완 등 사업 추진방향 수립
'22.6~11월	1차 시범사업 추진(6개월)

□ (2차) 사료용 어획물의 최초 공급자·물량·시기 등 전체 유통 경로를 파악·관리*하는 2차 사업을 통해 불법 어획물 공급 방지

* 유관부서(수산자원정책과, 국립수산과학원)와의 협업을 통해 어획물 합법성 검토

* 2차 사업 추진시기, 세부계획 등은 1차 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논의 예정